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7. 30.(금) 총 15매(본문 7, 붙임 8)		
담당 부서	유통정책과 (수산물)	담당 자	• 과장 임태훈, 사무관 김지현, 주무관 윤성하 • ☎ 044)200-5440, 5447, 5448		
	해양생태과 (해양생물)	담당 자	• 과장 이재영, 사무관 장유경, 주무관 황유영 • ☎ (044)200-5310, 5315, 5317		
	항로표지과 (등대)	담당 자	• 과장 김정화, 사무관 김정식, 주무관 배용찬 • ☎ (044)200-5870, 5878, 5881		
	해양영토과 (무인도서)	담당 자	• 과장 김완수, 사무관 박희운, 주무관 김연정 • ☎ (044)200-5355, 5356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

- 해수부, 8월 이달의 수산물·해양생물·등대·무인도서 선정 -

① 이달의 수산물 - 민어, 문어, 미꾸라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무더위를 이겨낼 건강 보양식인 민어, 문어, 미꾸라지를 선정했다.

여름 대표 보양 수산물인 민어는 산란을 앞둔 여름철에 살이 올라 영양이 풍부하고, 그 맛도 깊어진다. ‘민어’의 ‘민’은 백성(民)을 뜻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백성 모두와 나눌 만큼 흔하고 맛있는 물고기라 했지만, 지금은 흔하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는 고급어종이 되었다.

민어에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 인 등은 어린이 성장·발육과 노인의 기력 회복에 특효이며, 라이신, 류신과 같은 필수아미노산과 함황아민

노산이 풍부해 무더위로 인한 피로감을 덜어주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민어의 부레는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공존하는 특유의 식감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별미로 손꼽힌다.

문어는 어느 계절에 먹어도 좋지만, 무더위에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에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주변의 색으로 위장을 하거나 기분에 따라 색을 바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문어는 고단백, 저지방, 저열량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하며,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여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 유지와 신경계 기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문어는 한 번에 손질하여 살짝 데친 후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였다가 해동해먹으면 더운 여름밤 시원한 맥주 안주 등으로 먹기 좋다. 문어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리 뒤쪽에 있는 입을 제거하고, 머리 부분을 뒤집어 먹물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히 내장을 분리해서 잘라준다. 그리고 굵은 소금, 밀가루 등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 흐르는 물에 두 번 헹구어 주면 손질이 마무리된다. 끓는 물에 5분 정도만 살짝 삶아 얼음물로 식혀 주면 쫄깃한 문어숙회를 즐길 수 있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로는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전통 보양식품인 ‘추어탕’의 재료가 되는 미꾸라지이다. 미꾸라지가 몸에 좋은 이유는 극심한 가뭄에도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꾸라지는 주로 탕이나 튀김과 같이 뼈째로 많이 먹기 때문에 칼슘 함유량이 우유보다 7배, 멸치보다 1.5배가량 높아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들어 연일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칫하면 더위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 쉽다.”라며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민어, 문어, 미꾸라지로 건강도 챙기시고 입맛도 돋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 올리브바다거북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최근 공식적으로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올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Lepidochelys olivacea*)’을 선정하였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해양파충류로, 이름과 같이 몸통이 전반적으로 올리브색을 띠며 배쪽 껍질은 연한 노란색을 띤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체구가 작은 편이며, 등쪽 껍질은 전반적으로 둥글고 앞뒤 길이가 양 옆 길이에 비해 긴 특징이 있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다른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모래사장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들은 성숙한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특정 이동경로 없이 대양을 떠돌며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해역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의 부검 연구결과가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국내 서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바다에 사는 바다거북의 종류는 총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을 포함한 바다거북들은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혼획 등으로 그 개체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국제적

으로도 올리브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목적의 거래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6월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올리브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은 대부분 좌초·혼획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해안가에서 좌초·혼획된 바다거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구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올리브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등대 - 도남항동방파제 등대



8월 이달의 등대로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높이 17m의 도남항동방파제 등대가 선정되었다. 이 등대는 매일 밤 4초에 1번씩 녹색 불빛을 비추며 도남항을 드나드는 선박에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통영은 빼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은 걸출한 문필가들을 배출한 바 있다. 현대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생명과의 대표작가 청마 유치환, 꽃의 시인 대여 김춘수, 천부적인 시인 조정 김상옥, 대하소설 <토지>를 지은 최초의 여성 장편소설가 박경리 등이 통영을 대표하는 문인들이다.

1986년 12월에 처음 불을 밝힌 도남항 동방파제 등대는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2006년에 커다란 연필 모양으로 새롭게 지어졌다. 원형, 삼각형, 사각형이 조합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연필 형상은 문인들의 힘찬 기상을 나타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기둥은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도남항 동방파제 등대는 도남관광단지에 위치하여, 충무교 아래에 있는 빨간색 색연필 모양의 통영문화방파제 등대와 함께 문화예술의 도시 상징물로서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통영은 문학의 도시답게 박경리 기념관, 청마 문학관 등이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만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건립한 지 100년이 넘는 등대 15곳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인 ‘등대 스탬프 투어 시즌2’를 시작했다. 등대 15곳을 모두 방문한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함께 한정판으로 제작한 등대모형 1천 개 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제외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④ 이달의 무인도서 - 문섬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문섬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면적 94,533㎡, 높이 약 82m의 무인도서다. 문섬은 서귀포항 남쪽 1.3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여 외돌개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

문섬의 탄생과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옥황상제가 아름다운 제주를 돌아보러 내려왔다가 사냥꾼이 잘못 쏜 화살을 맞고 화가 나서 한라산 봉우리를 움켜쥐고 던져 그 중 일부가 섯섬과 문섬, 범섬이 되었고, 한라산 꼭대기가 뽑힌 자리는 움푹 패여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문섬이라는 이름은 민둥섬이어서 ‘뽕섬’이라 불리다가 음이 변해 ‘문섬’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섬 안에는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보리밥나무와 큰보리장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상록수가 울창하여 제주도 지정 문화재기념물 제45호로 보호되고 있다.

문섬은 바닷속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한 스킨스쿠버 장소로도 유명한데, 수중에 난류가 흘러 사시사철 아열대성 어류가 서식하며, 63여 종에 달하는 희귀한 산호가 자라 국내 최고의 수중 생태계를

자랑한다. 특히, 깨끗한 물과 환경이 좋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연산호(Soft Coral)가 세계적인 규모로 군락을 형성하여, 호주 북동쪽 해안의 산호초 지대(Great Barrier Reef)를 이루는 경산호(Hard Coral)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으로 문섬을 포함한 제주 서귀포 바다의 산호 정원(Coral Garden)은 천연기념물(제주연안 연산호 군락)로 지정되었고, 2019년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에 꼽히기도 했다. 또한, 2002년에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해양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문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이달의 수산물

8월
이달의 수산물

문어

Octopus



해양수산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연체류 중 타우린 함량이 가장 높은 문어는 어느 때나 먹어도 좋은 사계절 건강 수산물이지만 무더위에 기력이 떨어진 여름에 먹으면 좋다. 주번의 색으로 위장을 하거나 기분에 따라 색을 바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도 불리는 문어는 고단백, 저열량,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하다. 또한 풍부한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고 동맥경화나 심장마비 등을 예방해 준다. 또한 시력 및 신경계 기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이 또한 타우린의 역할이다.

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94 kcal	81.5 g	0.8 g	15.5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2.0 g	31 mg	188 mg	1.0 mg

라이신	류신	아르기닌	타우린
(lysine)	(leucine)	(Omega-3)	(taurine)
762 mg	851 mg	831 mg	435 mg

20210801

8월
이달의 수산물

민어

Croaker



대표적인 여름 보양 수산물 중 하나인 민어는 산란을 앞둔 여름철에 지방이 차올라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 옛날에는 '민어의 민'자가 백성 민(民)을 뜻해 백성 모두와 나눌 만큼 귀하고 맛있는 물고기라 했지만 요즘은 값비싼 생선으로 대접받는 고급 어종이다. 민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륨, 인 등은 어린이 성장 발육과 노인 기력회복에 특효가 있다. 또한 민어의 부레에는 젤라틴과 콘드로이틴이 많이 함유돼 있어 피부 건강을 촉진시키고 노화, 골다공증,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86 kcal	79.4 g	0.8 g	15.5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3 g	22 mg	178 mg	0.3 mg

라이신	류신	함황아미노산	비타민B3
(lysine)	(leucine)	(sulfur amino acid)	(nicotinic acid)
1,632 mg	1,411 mg	824 mg	3.7 mg

20210801

8월
이달의 수산물

미꾸라지

Loach



내륙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꾸라지를 재료로 만든 추어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전통 보양식입니다. 미꾸라지가 몸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극심한 가뭄에는 진흙 속에 들어가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이다. 영양학적으로도 단백질과 비타민A, D, B1, B2, 무기질, 칼슘 등이 풍부한 미꾸라지는 고단백 영양식이다. 특히 미꾸라지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용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칼슘 함유량이 우유보다 7배, 멸치보다 1.5배 가량 높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95 kcal	78.6 g	2.8 g	16.2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2.2 g	736 mg	437 mg	8.0 mg

비타민A	류신	함황아미노산	비타민B3
(retinol)	(leucine)	(sulfur amino acid)	(nicotinic acid)
7.9 µg	1,342 mg	784 mg	7.9 mg

20210801

참고 2 최근 5년간 문어, 민어 및 미꾸라지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문어	9,413	10,085	9,747	9,808	8,988
민어	5,066	4,568	3,983	4,549	4,545
미꾸라지	831	826	668	645	690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수출·수입량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문어	수출	270,070	304,667	196,143	550,352	127,640
	수입	12,409,642	12,505,138	12,673,788	12,278,796	10,569,852
민어	수출	71,584	141,194	626,618	2,971,579	801,165
	수입	24,909,184	23,742,495	25,807,121	23,816,422	20,264,753
미꾸라지	수출	3,219	1,935	1,646	1,202	1719
	수입	8,800,388	9,014,888	8,719,917	8,541,802	7,859,771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참고 3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8월

이달의 수산물

더위 물리치는
자양강장 식품!
문어, 민어, 미꾸라지
더 알고싶어?

어식백세 블로그
바로가기

문어

연체류 중 가장 영양가 높고
타우린 함량이 높아
원기회복에 탁월!

미꾸라지

전통 보양식품 미꾸라지
영양 풍부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
기력 보충에 추어탕만 한 것이 없지

민어

여름 민어는 양분 가득 영양 듬뿍!
부위별 17가지 맛으로
복더위에 꼭 먹어야 하는 생선

올리브바다거북
2021. 08
www.koem.go.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한국판뉴딜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올리브바다거북은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해양파충류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몸통이 전반적으로 올리브색을 띠며 배 쪽 껍질은 연한 노란색이다. 2017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의 부검 연구결과가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어 올리브바다거북의 국내 서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사는 바다거북의 종수는 총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다. 올리브바다거북을 포함한 바다거북은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등 서식지 훼손과 혼획 등으로 그 개체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목적의 거래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올리브바다거북은 다른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모래사장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들은 성숙한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특정 이동경로 없이 대양을 떠돌며 생활하지만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해역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체구가 작은 편에 속하며, 등쪽 껍질은 전반적으로 둥글고 앞뒤 길이가 양옆 길이에 비해 긴 특징이 있다.

Lepidochelys olivacea

우리가 보호해야 할
올리브바다거북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08월
이달의 등대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한국판뉴딜

통영의 문인들을 기리는 상징물,

도남항
동방파제등대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1. 1. 1. ~ 12. 31

① 블로그 포스트 이벤트
남안적인 등대에서의 하룻밤!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트 중, 우수 포스트를 선정하여 등대 체험 숙소 이용권 (2박 3일) 증정

②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1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1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번째부터 스탬프를 찍은 참여자와 스탬프 투어 이벤트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2019~2020 시리즈도 참여 가능!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 바다 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남항 동방파제등대

경상남도 통영시는 맑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는 항구도시이자, 현대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유지환, 김춘수, 박경리, 김상옥 등의 문필가를 배출한 문학의 도시이다.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글쓰기에 주로 이용되는 연필의 모양을 본떠 세워진 도남항동방파제등대는 매일 밤 4시에 반백 녹색 불빛을 비추며 도남항을 드니드는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 주고 있다.

도남관광단지에 위치한 흰색의 도남항 동방파제 등대는 총무고 아래에 위치한 빨간색 세련된 모양의 통영문화방파제 등대와 함께 예술의도시 상징물로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변 관광지

- * 통영 케이불커, 통영 타워, 통영 루지
- * 통영항, 서미항 마을
- * 통영해저터널
- * 박경리 기념관
- * 창야 문학관
- * 남양산 조각공원
- * 이순신 공원

주변 먹거리

명게 비빔밥 부드러운 속살과 먹먹한 갈라기를 가진 명게(우렁개)는 상큼하고 씹살한 특유의 맛이 단아하고 절묘하게 어우러진 해산물이다.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여름철에 채취한 명게가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명게 비빔밥은 순창한 명게, 상추, 김가루, 양파, 어란알 채소, 참기름 등을 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으로 깔끔한 맛과 함께 바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021년 8월 이달의 무인도서



산호 정원을 품은 제주 서귀포 문섬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문섬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면적 94,533㎡, 높이 약 82m의 무인도서다. 문섬은 서귀포항 남쪽 1.3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여 외출계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

문섬의 탄생과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옛날 옥황상제가 아름다운 제주를 돌아보러 내려왔다가 사냥꾼이 잘못 쏜 화살을 맞고 화가 나서 한라산 봉우리를 옮겨두고 단적 그중 일부가 섬섬과 문섬, 문섬이 되었다고, 한라산 꼭대기가 떨어진 자리는 울룩 패여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문섬이라는 이름은 민들레밭에서 '문섬'이라 불리다가 문이 변해 '문섬'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섬 안에는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보라빛나무와 큰보리참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식물수가 울창하여 제주도 지정 문화재(기념물 제45호)로 보호되고 있다.

문섬은 바닷속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한 스노클링 명소로도 유명하며, 수중에 출몰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아귀, 서시돔, 62이 등)에 달하는 희귀한 산호가 자리 국내 최고의 수중 생태계를 자랑한다. 특히, 깨끗한 물과 환경이 좋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연산호(Soft Coral)가 세계적인 규모로 군락을 형성하며, 호주 북동쪽 해안의 산호초 지대(Great Barrier Reef)를 이루는 경산호(Hard Coral)와 종단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으로 문섬을 포함한 제주 서귀포 바다의 산호 정원(Coral Garden)은 천연기념물(제주자연유산호 군락)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에 꼽히기도 했다. 또한, 2002년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무인도서통합정보제공시스템(<http://a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f.go.kr>
<http://blog.naver.com/koreamof>
www.facebook.com/pg/mofkor/photos